

“학과 나는 둘이 아니다”

3월 7~8일 명무명인전 열려, 김덕명 선생 ‘양산사찰학춤’ 진수 선배



김문숙의 '대궐무', 임옥자의 '원향살풀이춤', 김진홍의 '승무'.

‘학이 선비를 흉내 내는지, 아니면 선비가 학을 흉내 내는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하얀 도포에 갓을 쓰고 너울너울 날다 내려앉아 두령 넘어 먹이를 쪼고 다시 날아오르는 몸짓들, 깃털처럼 가벼운 디딤새며 매무새는 영락없는 학의 자태다.’ 학산 김덕명(84) 선생의 ‘양산사찰학춤’을 본적이 있는 사람들의 탄성이었다.

김씨의 그 고고한 춤사위를 3월 7~8일 오후 7시30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리는 ‘제 52회 한국의 명무명인전’에 가면 다시 만날 수 있다.

“나는 단순한 학의 흉내가 아닌, 내가 바로 학이 되는 춤을 추구합니다.”라는 김씨가 60여년 춤인생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 춤의 흥취가 담긴 줄거리와 가락, 장단을 한 치도 즉흥적으로 변질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곳곳에서 벌어지는 춤판을 들여다보면, 무국적의 화려한 춤들과 어지러운 장식, 공연한 꾸밈새에 치우친 춤들이 판치고 있어 전통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씨의 춤은 군더더기 없이 자연스럽고

김문숙 ‘대궐무’, 김진홍 ‘승무’ 등 원로 부터 신예까지 한무대서 공연

속인의 티가 나지 않는다. 이는 18세때 잠시 통도사로 출가한 김씨의 이력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김씨는 통도사에서 부복, 공양주, 행자를 거쳐 ‘고암’이란 법명을 얻은 후 당시 명무가인 경수 스님과 대웅 스님으로부터 ‘지성승무’ ‘연등바라춤’ ‘사찰학춤’을 두루 전수받았다. 이렇게 김씨는 세간과 출세간 사이를 넘나들며 예술혼을 불태워 오늘날 ‘김덕명’이란 이름 석자를 우리 전통춤계의 최고 반열에 올린 것이다.

이날 김씨가 선보일 ‘양산사찰학춤’은 신라 선덕여왕 15년(646년) 자장율사가 통도사를 창건한 후 앞마당에서 춤 춤으로 아직 무형문화재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호평받고 있다. 이날 무대에서는 날개 짓과 다리놀림, 고개짓 등 섬세한 춤사위로 한 마리의 학이 왜 무대를 활활 날아다니는 김씨의 몸짓 언어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에서 김덕명 선생 다음으로 최고령인 김문숙 씨(80·예술원 회원)는 1958년 제1회 김문숙무용발표회에서 선보였던 ‘대궐무’를 재현한다. 구중궁궐 심저에서



김덕명의 '양산사찰학춤'

오로지 임금을 위해 평생을 바쳐야 했던 여인들의 희로애락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외에도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을 역임한 김진홍 씨(73·동래한량무 준인간문화재단 정중동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김진홍의 정수(精隨인) ‘승무’를 펼쳐보인다. 또 승전무 예능보유자인 임옥자씨(66·부산대 교수)는 한을 안고 흐느끼는 듯한 ‘원향살풀이춤’을 선보인다. 3월 7일 공연에서는 중진과 신예 중심의 춤이 펼쳐지고, 원로급들의 춤은 8일 공연에서 만날 수 있다. (02)2278-5452 김주일 기자

우리나라 불교음악 이야기 ③

대부분 다른 곡에 가사 붙여 사용

1930년대 - 1960년

이 시대는 일제시대와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이다. 숨 가쁜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문화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혹 있었다하더라도 일제의 억압 속에서 자료를 보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래서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존한 기록들이 대부분이다.

윤문스님께서 필자에게 주신 ‘기록’은 음악에 관한 것이다. 조학유 스님이 <불교> 김정목 포교사 최초 찬불가 집대성에 연재한 악보들을 엮어놓은 자료다. 1948년에는 정식으로 찬불가 책자가 출간되어 포교당에서 사용되었음을 정선포교사의 서문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도 완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작사자는 기록되어 있는데 작곡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조학유 스님이 서문에 기록하신 내용처럼 이때에도 다른 곡에 가사를 붙여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몇 곡들은 작곡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불교음악의 창작 활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좋은 기록이다. 1985년에 ‘효동선원 불교 교양대학 자료집’에 기록된 서문

창업 선생의 글을 보면 ‘1972년 10월에 가사를 주면서 마땅히 부를 수 있는 애창곡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 달라’라고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제는 찬불가의 금지와 불교음악인의 자존심을 지켜야할 때가 왔다. 조학유 스님의 서문에서 ‘불교 찬가라고 하는 기풍은 있었으나 가사뿐이고 주곡이 불일하여...부득기...타종교의...호곡들을...후일에 작곡자에게 양 할다.’라고 했고 김정목 포교사는 “...나 는 음악을 모른다. ...노래가 어디 가 잘못 되었는지...뭇 날...바로 잡혀지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서문에 기록했다.

얼마나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인가? 김정목 포교사가 불교 최초로 찬불가를 집대성하여 세상에 펼쳐놓은 기록으로 단기4281(1948)년 4월 8일에 출판된 찬불가집의 서문을 보자.

“이 책에 수록된 노래들은 대개가 각 포교당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수집 편찬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음악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수록된 노래가 어디가 잘못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세상에 보내는 바이다. 다만 뒷날 뒷사람들의 손을 거쳐 바로 잡혀지기를 바랄 뿐이다.”

안병길(삼보불교음악학회 사무총장)

아수라를 둘러싼 응징 담아 창작퍼포먼스 ‘카르마’ 공연

한국의 보편적 정서를 담은 무용극을 해외시장에 수출해왔던 무무컴퍼니(대표 권은정)가 ‘업(業)’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3월 3·4일 양일 간 국립중앙박물관 내 극장 ‘용’에서 열리는 창작 퍼포먼스 ‘카르마(KARMA)’가 그것. 자연의 흐름을 관장하는 5명의 남성과 6명의 여성이 탐욕의 신 ‘아수라’에 맞서 싸운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충분한 볼거리는 이 작품을 감상하는 즐거움중 하나다. 다채로운 한국 전통춤과 동양무술, 미술처럼 펼쳐지는 동양화시연 등이 빠르게 전개돼 관객들을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내용이 매우 신화적인 것도

신선하게 다가온다. 1544-5955.

김주일 기자

보이차 전문점

정해년 고객잡자 이벤트

3만원 이상 구매시

서명보이에서 차사돼 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200개 한정

瑞榮香洱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니르바나 테마연주회 갈수록 인기

3월 8일 ‘이시우 박사와 함께하는 천문학이야기’

연주회 때마다 색다른 변신을 시도하는 니르바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의 테마연주회가 화를 거듭할수록 불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니르바나의 테마연주회는 불화, 경전, 천문학, 풍화, 성지순례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뒤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관련 이야기와 선율을 함께 선사한다.

3월 8일 오후 7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는 ‘이시우 박사와 함께하는 천문학이야기’란 이색 주제의 음악회가 열린다.



2월 8일 ‘불화’ 주제 테마연주회에서 서연 스님이 플루트를 연주하고 있다.

한국 관측천문학의 개척자 이시우 박사가 초정패 별의 설리와 연기의 법칙을 들려준다. 또한 이시우 박사의 별 이야기 중간에는 별을 주제로 한 이진구씨의 창작곡을 윤문숙씨가

해금 연주로 선사한다.

이외에도 6월 14일에는 ‘원성 스님이 들려주는 자연동화’, 8월 9일에는 ‘해설이 있는 키즈 음악회’, 10월 11일 ‘이호신 화백의 부처님 성지 찾아 가는 길’, 12월 13일 ‘본각 스님의 <화엄경> 읽는 풍경’ 등 다채로운 주제의 음악회가 마련된다.

테마연주회를 기획한 강형진 단장은 “지난해 6월 이호신 화백과 함께 한 첫 테마연주회 ‘인도이야기’와 두 번째 월호 스님의 ‘모차르트이야기’를 본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워 올해도 기획했다”며 “다양한 주제와 함께 음악을 들려주다보니 아이들도 지루해 하지 않아 가족단위의 관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02)718-4599 김주일 기자

사찰산 묘적암

정인성 시인

나옹선사 사리탑은 고려벽에 지었는데 탑 위에 지은 절은 어느 시절 암자인가

탐에도 절에도 이끼만 푸르르니 시퍼런 이끼는 또 어느씩 세월일까



묘적암(妙寂庵) - 고려말의 고승 나옹선사(懶翁禪師)가 출가한 암자로 선사의 사리탑이 남아있다. 그림 이상배 화백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007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웰빙의 상징 사찰음식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찰음식문화학과 (1년 과정) 신입생 모집

1. 개설취지

웰빙시대가 요청하는 사찰음식의 정신은 생명존중의식과 수행식으로, 사찰음식의 체계적 연구 및 사찰음식의 전문가 양성, 사찰음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지도 교육합니다.



2. 교과목 및 지도교수

과정	기간	요일	내용	지도교수
사찰문화음식학과 (30명)	기분과정 1년 (2학기 과정)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전통음식과 대중화음식 조리법 교육 · 사찰음식의 이론과 실습을 병행 교육 · 사찰의 절기에 맞춘 실습 교육	정산스님 외 교계 전문스님과 교수진

3. 개강 : 2007년 3월 21일(수) 오후 2시

4. 문의 : 본 대학 사무국 (02-732-1206)

5. 특전 : · 사찰음식점 개원 시 지원

· 행사 및 출장요리사 기회 제공

학과	교과목	교수	강의시간	제출서류
불교한문학과(3년) (정규·통신 50명)	· 육조단경, 주역(1), 주역(2), 한자학원론, 설문해자, 중국고전(1,2), 한국고전(1), 불교경전(1), 한학연구입문 등	심재동(동국대교수), 김형중(동대부고교법사), 심경호(고려대교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입학원서 1통
불교다도학과(3년) (정규 30명)	· 한국차문화사 (중국, 일본, 유럽), 제다학(1)(2), 차도문헌, 한국의 현대차	박희준 교수, 박전열 교수, 자운 스님, 적경 스님, 선해 스님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주민등록 등본 1통
불교장례문화학(2년) (정규 20명)	· 장례학개론, 장묘제도론, 종론, 불교상장례 등	김일무 교수, 김미혜 교수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반명함판 사진 3매
불교미술학과(3년) (정규 20명)	· 불교미술, 불화기분, 여래초, 보살초, 사왕초, 단청 등	김익홍(전 동국대), 법인스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개강일시
한문학과 : 2007년 3월 8일(목), 다도학과 : 2007년 3월 6일(화), 불교미술학과 : 2007년 3월 7일(수), 불교장례문화학과 : 2007년 3월 6일(화)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강좌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 35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의개요

1. 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보통)
2. 교육장소	동산 법당 (동산불교회관)
3. 개강일시	2007년 3월 7일(수요일) 오후 7시
4. 교과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 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 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 교재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7. 입 학 금	90,000원 (3개월)
8. 지원자격	제한없음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본 대학원 사무국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loud.net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